2018년 6월 10일(주일) 속회공과
고통에답하다(1)-고난, 영광의 통로/로마서 8:17-18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통 330장)

우리는 고난을 유익이라는 관점으로 보기를 거부합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아예 제거시키거나 최대한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에는 의미가 있으며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생명과 영광을 주십니다.

1. 고난을 통해 믿음의 불순물이 걸러집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으리라는 교만이 산산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 내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올 때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것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믿음에 섞여있던 불순물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금광석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순도 99.9%의 순금으로 제련되는 것처럼, 어렵지만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불순물들이 녹아 없어지며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합니까?

2.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성공할수록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무조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온전한 영광을 고난을 통해 받으십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꼭두각시가 아니라, 그 너머에 큰 뜻을 갖고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할 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으며, 이럴 때 우리는 참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 성공보다 고난을 통해 받으시는 영광이 더 온전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3. 고난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이 돌에 맞아죽으면서도 기도할 때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이켰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힘과 진정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빌1:12).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듯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늘의 천군천사가 지켜보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상주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 고난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십니까?
[금주의 미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허락하신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합시다